

청문회는 재벌을 배려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국민의힘은 재벌과 정치권의 기득권 카르텔 의혹에 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 당일 핵심 증인인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합니다.

윤 의원은 정 전 회장에게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청문회는 재벌을 배려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의혹을 밝히며,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재벌기업 총수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청문회라면 더욱 엄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문위원이 핵심 증인에게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청문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문제는 문자 한 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와 감시받아야 할 재벌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문자에는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라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제3자를 통한 접촉이 있었다면, 그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의 연락이 오갔는지, 해당 연락이 청문 준비와 질의에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친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과 정치권 사이에 부적절한 밀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청문회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개인적 친분에 따른 연락으로 사안을 축소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구두 주의만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상을 확인하기도 전에 소속 의원 감싸기에 나선 것입니다. 당 차원의 구두 주의와 일방적인 해명만으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정 선배’는 누구입니까.

어떤 내용의 연락이 오갔습니까.

해당 연락이 청문 준비와 질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의혹을 개인적 친분이라는 말로 덮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와 관련해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행위는 청문회의 공정성과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당 차원의 구두 경고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사와 심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윤용근 의원은 ‘정 선배’의 신원과 연락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둘째, 국민의힘은 재벌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밀착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십시오.

셋째,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윤용근 의원 징계안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넷째, 윤리특별위원회는 제3자를 통한 접촉과 사적 이해관계, 해당 연락이 청문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국회가 배려해야 할 대상은 힘 있는 재벌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번 징계안은 한 의원 개인의 일탈만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벌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밀착 의혹이 청문회의 공정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윤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국회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